

5장. 의인을 찾으나 우상 숭배자와 반역자만 발견함

예레미야 2-3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4장에서는 그러한 죄를 북방의 군대를 통하여 심판하실 것을 말하였다. 5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죄를 지적한다. 도덕적인 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결과로 생기는 것이다. 그들이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책망과 결박을 벗어버린 것’ (5:3, 5)은 우상을 섬기면서 ‘책망과 결박을 벗어버린 것’ 과 연결된다(2:20, 30).

1. 의인을 찾았으나 여호와와 책망과 결박을 벗어버린 자만 발견함 (5:1-9)

하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라도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성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열 사람을 찾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는데(창 18:22-23), 지금은 모두 거짓 맹세를 하는 사람들뿐이고 한 사람도 정직한 사람을 찾을 수 없다. 그들이 여호와와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거짓 맹세를 할 뿐이었다(5:1-2).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여 징계하셨으나 그들은 감각이 없고 징계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얼굴을 굳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그 사회의 지도자들도 여호와와 길과 그분의 의를 안다고 하였으나 그들도 모두 여호와와 명을 깨뜨리고 결박을 풀어 버렸다(5:5. 참조 2:20). 지도자나 백성이나 모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데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그러한 나라에는 사자나 이리나 표범과 같은 강포한 나라를 통한 심판 밖에는 남은 것이 없다(5:3-6).

하나님께서서는 우상으로 맹세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음행하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들의 죄악이 심각함을 짐승의 발정기의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의 본능대로 행하는 그러한 나라[고이. 이방 나라를 지칭. 참조 29절]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5:8-9).

2. 징계하시나 멸절하지는 않으심 (5:10-19)

하나님께서서는 예언자를 통하여서, 범죄한 백성에게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다 훼파하지는 말라고 하신다. 심판을 선언하는 이 문단의 처음과 마지막에서 ‘다 훼파하지 말라’ 는 말이 나온다(10, 18절).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예언자의 말은 바람이라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의 입에 있는 말은 불이 되게 하고 그 백성은 나무가 되어서 불사르게 하실 것이다(5:12-14).

그렇게 불순종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북방 민족을 통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도 이스라엘을 진멸하지는 않으실 것이다(5:18). 이 세계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불순종 때문에 다른 민족을 써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일은 하시겠지만,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진멸시키지는 않는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백성을 다른 땅으로 보내시고 거기에서 그들이 의뢰하던 우상을 섬기게 하시겠다고 심판을 선언하셨다.

3. 지도자와 백성이 모두 완고한 상태에 있음 (5:20-31)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어둡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하여서 성난 파도도 그 명령을 지켜 그 한계에 머물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주시는 분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상실하게 되었다(5:22-25).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은 사회적으로 불의를 행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그러한 나라는 심판의 대상이다. 예언자는 거짓으로 예언하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고 백성은 그것을 좋아한다.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5:26-31).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라도 의인을 찾아보려는 예레미야의 임무는 실패로 끝났다(5:1).

목상과 실천:**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심판을 당하면서도 그 이유를 모른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5:19) 하며 묻는 백성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5:19) 하고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원칙에 의한 심판이다.

여호와께서는 헛된 우상을 섬기면 우상처럼 헛된 것이 된다고 경고하셨는데(2:5) 그들이 우상처럼 된 상태를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5:21)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촉구한다.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처럼 된 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길이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실 뿐 아니라 혼돈을 통제하는 분이시다.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계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흥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5:22). 외적의 침입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나 그것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5:24) 하는 말을 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셨으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넣어 주시는 말도 거역하고 자기의 번영을 추구한다. 우상을 섬기는 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하여 더 큰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이 이러한 배반을 하는 것이 여호와와 그분의 예언자에게는 큰 고통이었을 것이다. 예언자가 거짓으로 예언하고 제사장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일반 백성도 그것을 좋아하는 것은 그들이 큰 어둠 속에 있음을 나타내는 일이다(5:31).

구약 교회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은 신약 교회에 속한 우리에게도 큰 경고가 된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를 아는 좋은 시금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보는가에 있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어도 자기의 복을 추구하면서 다른 현실은 무시하게 된다. 그러나 바르게 듣고 읽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들어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도 않는 것이다.

5장 익힘 문제

1.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 성에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몇 사람을 찾으면 그 성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1절)
2.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징계를 받고도 그 얼굴을 어떻게 하며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3절)
3.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치시고 멸하실 때의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 1)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맹세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2절)
 - 2) 그 백성이 비참하고 우준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5절)
 - 3) 여호와의 길과 그 법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멩을 꺾고 결박을 끊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5절)
 - 4)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하여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6절)
4. 1) 유다 백성은 여호와께서 예언자를 보내어 심판하실 때 그것을 무엇과 같이 여기며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13절)
 - 2)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을 향해 예언자의 말은 무엇이 되게 하고 백성은 무엇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14절)
 - 3) 그때에도 이스라엘을 어떻게는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18절)
5. 여호와께서는 유다 백성을 심판하러 올 북방에서 오는 민족을 어떻게 묘사하셨습니까? (15, 16절)
6.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이 그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긴 죄로 인해 다른 나라에서 누구를 섬길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19절)

7. 성난 파도라도 여호와께서 정하신 바다의 경계를 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의 어떤 점을 꾸짖고 계십니까? (22, 23절)
8.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땅의 기괴하고 놀라운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30, 31절)
 - 1) 예언자들은 어떻게 행한다고 하였습니까?
 - 2)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행한다고 하셨습니까?
 - 3)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들을 어떻게 여겼습니까?